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具滋明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The Make-up Illustrations Based on Deconstruction

2004年 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在 烈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具滋明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The Make-up Illustrations Based on Deconstruction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李 在 烈

李在烈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年 2月

審査委員長 이 재 영 

審査委員 이 미 쟁 

審査委員 구 자 명 

국문 초록

본 연구는 90년대 말 이후 현대 패션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을 파악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테마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함으로써 주제표현 능력과 더불어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체주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인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1997년 이후의 패션 전문 잡지 Beauty Collection, Collections, Fem, Modain, Vogue를 통해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유형에 따라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은 기존 방식의 해체, 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해체는 좌우대칭, 균형미, 통일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색채 사용과 질감 표현에 있어서도 기존 메이크업의 모든 구조적 형태와 표현 방식을 해체함을 말한다. 과감한 색채 사용이나 장식으로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데카당스 메이크업과 곤충이나 동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기이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테스테 메이크업,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응용하여 유머러스한 기호와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래픽 메이크업,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의외성을 유발시키는 콜라주 메이크업이 있다.

성의 해체는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 가지 성을 모두 지닌 형태인 '제 3의 성' 개념을 의미한다. 직선 처리나 저명도 칼라의 남성적 이미

지와 곡선 처리, 고명도 칼라를 이용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혼합한 메이크업을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이라 하였다.

역사·민족의 해체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다 민족적 특성들이 공존함을 말한다.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화이트컬러를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과 고대 이집트의 질은 아이메이크업, 마오리족의 다양한 문양의 타투 등과 같이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동시에 표현한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서는 수채화물감, 포스터칼라, 색연필 등의 기본적인 드로잉 재료 뿐만 아니라 잡지, 부직포, 스크린톤, 비즈, 구슬, 스웨이드, 모래 등의 오브제를 활용하여 입체적 표현과 매체의 혼합 등을 보여줌으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모티브로 삼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묘사 위주의 표현에 치중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영감과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국문 초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5
1) 메이크업의 정의	5
2)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	6
3)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8
4)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용도	10
(1)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0
(2) 선전·광고를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1
(3) 트렌드 제시를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2
(4) 메이크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2
(5)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2
2. 해체주의	17
1) 데리다의 해체주의	18
(1) 차연	19
(2) 상호텍스트성	20

(3) 불확정성	20
(4) Dis·De 탈현상	21
2) 해체주의 메이크업	21
(1) 해체주의 메이크업 개념	21
(2)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22
Ⅲ. 작품 제작	44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44
2. 작품 및 해설	45
Ⅳ. 결 론	67
참고 문헌	69
ABSTRACT	73

표 목차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34
--------------------------------------	----

그림 목차

<그림1-1> 진현용 외 1인, The Body Art, Vol.1	14
<그림1-2> 진현용 외 1인, The Body Art, Vol.1	14
<그림 2> 이영애 외 4인, Beauty Illustration	14
<그림 3> 이연희 외 1인, Make-up Design	14
<그림 4> Vogue Korea, 2001, 10월, 부록	15
<그림 5> Mac 광고용 엽서	15
<그림 6> 주간 코스매틱, 2003, 9월 15일자	15
<그림 7> 주간 코스매틱, 2003, 9월 1일자	16
<그림 8> Vogue Korea, 2001, 4월	16
<그림 9> Make-up Art, 2003, 7월	16
<그림 10> Fatima Lopez,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35
<그림 11> Alexander Mcqueen, '97 S/S, Century of Fashion	35
<그림 12> Vivienne Westwood, '02 S/S, Fem, Vol.2	35
<그림 13> Christian Lacroix, '00-01 A/W, Collections II	35
<그림 14> Christian Dior,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36
<그림 15> Marella Ferrera,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36
<그림 16> Givenchy, '97-98 A/W, Modain, N.105	36
<그림 17> Givenchy, '97-98 A/W, Modain, N.105	36
<그림 18> Thierry Mugler, '00-01 A/W, Collections II	37
<그림 19> Thierry Mugler, '00-01 A/W, Collections II	37

<그림 20> Jean-Charles De Castelbajac,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37
<그림 21> Christian Dior, '00-01 S/S, Vogue Korea, 2000, 3월	37
<그림 22> Hussein Chalayan, '02 S/S, Fem, Vol.2	38
<그림 23> Hamish Morrow,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38
<그림 24> Boudicca,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38
<그림 25>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38
<그림 26> John Galliano,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39
<그림 27>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39
<그림 28> John Galliano, '00-01 A/W, Collections II	39
<그림 29> Kawakubo, '02 S/S, Fem Collection, Vol.2	39
<그림 30> Ann Demeulemeester, '02 S/S, Fem, Vol.2	40
<그림 31> Shimura, Gap Press Collections, Vol.21	40
<그림 32> Ronit Zilkha,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40
<그림 33> Franklin Roosevelt, L'Officiel Paris, N.867	40
<그림 34> John Galliano, '00-01 A/W, Collections II	41
<그림 35> Christian Dior, Vogue Italia, No.583	41
<그림 36> Issey Miyake,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41
<그림 37> John Galliano, '02 S/S, Fem, Vol.2	41
<그림 38>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42
<그림 39> Givenchy, '99-00 A/W, Collections, Vol.20	42
<그림 40> John Galliano, '97-98 A/W, Modain, N.105	42
<그림 41> Christian Dior, '97 S/S, Modain, N.103	42

<그림 42> Christian Dior, '97-98 S/S, Studio Collections, N.56	43
<그림 43> Givenchy, '97 S/S, Modain, N.103	43
<그림 44> Yohji Yamamoto, '02 S/S, Fem, Vol.2	43
<그림 45> Jean Paul Gautier, '02 S/S, Fem, Vol.2	43
<그림 46> 작품 1 의 사진	46
<그림 47> 작품 2 의 사진	48
<그림 48> 작품 3 의 사진	50
<그림 49> 작품 4 의 사진	52
<그림 50> 작품 5 의 사진	54
<그림 51> 작품 6 의 사진	56
<그림 52> 작품 7 의 사진	58
<그림 53> 작품 8 의 사진	60
<그림 54> 작품 9 의 사진	62
<그림 55> 작품10 의 사진	64
<그림 56> 작품11 의 사진	66

I.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 메이크업 분야는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뷰티산업 뿐 아니라 패션, 광고, 연극, 영화,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어지는 예술의 한 장르인 인체연출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의복, 헤어스타일 등과 더불어 새로운 색상, 형태, 질감을 창조하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므로 토털패션의 한 분야로 혹은 메이크업 그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대중예술 분야 중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다면 그 중 하나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범위로 미술의 매체를 빌어 이미지의 시각화·인체 연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큼 중요한 대중적 예술의 한 부분이다(노희영, 2002 :70).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고객 대상의 메이크업 시술 전, 디자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용도에서부터 패션 쇼를 위한 메이크업의 작품 시안이나 연극, 영화,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획과 제작을 위해 준비되어지거나, 메이크업 트렌드를 제시하거나, 기업 판촉 또는 뷰티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미술품과 같이 풍부한 이미지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예술작품으로까지 그 분야별 쓰임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용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적 작품

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실정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작품활동이 요구된다.

한편 매스미디어와 산업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는 대중들은 신념과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위해 개성화, 다양
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으로 이와 함께 예술에 있어서도 이전의
형식적인 스타일을 해체하거나 거부하고 풍부한 상상력과 정신적 영감에 근거
하여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즉 예술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해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예술작업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공
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도해 왔다.

해체주의란 '차이',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 '탈중심화' 등의 개념으로 경계
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 모든 것을 해체시킨 철학사상으로써 20
세기 후반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복식과 건축을 포함한 조형예술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조이다.

메이크업에서도 1980년대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 독특하고 인위적인 메이
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시도되었으며(김은영, 2000 :33), 1990년대 후반에는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醜)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얼굴이라는 조형요소를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메이크업을 많
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
업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발하고 획기적인 형태, 질감의 시각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표현방식에서는 묘사위주의 표현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혼합하거
나 입체적이고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등 표현 영역의 확대와 표현 방법의 다양
함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해체주의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접목시켜 작
품을 제작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90년대 말 이후 현대 패션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메이크업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되며,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테마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함으로써 주제표현 능력과 더불어 디자인 발상에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앞으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연구할 이들에게 참고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 많은 창작활동에 보탬이 되어 미용 분야에 대한 위상과 예술적 발전을 높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테마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양화되어진 용도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

둘째, 해체주의는 데리다(J. Derrida)의 기본 이론을 토대로 선행 연구 및 관련 전문 서적들을 참고하여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데리다의 이론을 근거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 형성 배경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해체주의 메이크업이 활발히 진행된 1997년 이후의 패션 전문잡지 Beauty Collection, Collections, Fem, Modain, Vogue에 실린 메이크업 사례들을 기존 방식의 해체, 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제작은 포스터칼라,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색연필 등을 이용한 드로잉 기법과 잡지, 부직포, 비즈, 깃털, 모래 등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한 콜라주 기법으로 독특한 표현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해체주의 메이크업 유형에 따른 이미지 전달을 목적으로 총 11작품을 제작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1) 메이크업의 정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업(Make-up)의 표현은 화장,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t), 마꾸아쥬(Maquillage)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메이크업의 사전적 의미는 '완성시키다', '보완하다', '제작하다'로서 일반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조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일로 해석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크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메이크업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메이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뷰티 메이크업(Beauty Make up)이라 하며 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후자에는 무대를 위한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 up), 필름 메이크업(Film Make up), 포토그래픽 메이크업(Photographic Make up), 캐릭터 메이크업(Character Make up), 화가의 미술 작품과 같이 얼굴을 캔버스 삼아 주제에 맞추어 디자이너의 주관대로 표현되어지는 아트 메이크업(Art Make up) 등이 있다.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이며, 미적 욕구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종교적인 필요성에서, 신분·계급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태고적부터 치장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 기원이 인류의 생존과 같은

시기라고 추측된다(김광숙 외 3인, 2002 :12).

현대 메이크업은 그 사람의 성별, 연령, 건강, 품위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이자 커뮤니케이션이다. 또한 의복, 헤어스타일 등과 더불어 새로운 색상, 형태, 질감을 창조하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므로 토털패션의 한 분야로 혹은 메이크업 그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오늘날 대중 매체의 발전은 특히 패션잡지와 영화 같은 대중매체의 증가와 더불어 이상적인 미에 대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美)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메이크업을 확대시키고 유행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은 얼굴을 단순히 아름답게 꾸미는 전문기능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인 면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을 재창조하는 전문 예술가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러스트레이션의 정의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은 사전적 의미로 ‘조명한다’, ‘밝게 한다’, ‘분명하게 만든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는 도표나 그림 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회화, 사진을 비롯하여 도표, 도형 등 문자 이외의 시각화된 것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핸드드로잉(Hand Drawing)에 의한 그림만을 뜻한다. 주로 신문, 잡지, 광고물, TV, 영화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복제되어 전달되며 약자로 ‘일러스트(Illust)’라고 한다(박선의 외 1인, 2001 :92).

미술의 학문적인 의미에서는 순수회화에서의 전통적인 인체 묘사를 드로잉이나 페인팅으로 텍스트와 함께 실어 출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림, 또는 어떤 특정한 용도를 위해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야는 목적에 따라 크게 출판 일러스트레이션과 광고 일러

스트레이션으로 나뉜다. 이것은 외형상 순수미술의 한 분야이면서도 그림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글의 내용과 연계되거나 광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체된 출판물을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순수미술과는 구별되는 목적 미술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션은 글의 내용이나 주제의 단면을 상징적, 풍자적, 해학적 또는 설명적으로, 때로는 장식적인 그림으로 목적에 따라 가시화 시켜 글이나 문구와 함께 들어가거나 책표지, 포스터 또는 광고 등을 위해 그려진다(앤드류 장, 1993 :80).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은 개성적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상상력을 지닌 것이어야 하나 표현 기술에 있어서는 완성도 높은 숙련을 요구한다.

또한 이것은 시각적 소구력이 강하여 이미지를 확립시켜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표현방법의 하나로 오늘날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표현과 적용범위가 날로 확대되어 지상매체에서부터 TV영상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권상구, 1999 :24).

대중매체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전문화되며 점차 문자언어에서 시각언어로 대중들의 기호가 바뀌어 가고 있는 현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문명이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인쇄에 의한 복제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각종 인쇄매체를 통해 어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양식이 요구되면서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뚜렷한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형성되었다(박선의 외 1인, 2002 :92).

일러스트레이션은 정보전달의 기능과 아울러 소비자에게 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출해내는 예술의 양면성을 공유하고 있다. 즉, 창작이라는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어 하나의 예술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보면, 형식에 있어서는 회화와 디자인

의 중간 영역이고, 목적에 있어서는 대중 설득과 미적 감동의 유발이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는 형태와 색채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며, 훌륭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제작될 수 있는 요소로는 창의력, 아이디어, 자기만의 독창성과 이를 표현해 낼 수 있는 테크닉을 필요로 한다(김미화, 2000 :5-6).

3)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념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는 메이크업과 일러스트레이션이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범위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의 구상을 스케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메이크업을 표현 주체로 하여 만들어진 설명도 또는 예상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의 기능과 목적성을 메이크업의 의미와 가치에 맞게 표현한 것이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넓은 의미에서는 메이크업의 단순한 도해에서 메이크업 이미지를 나타낸 고도의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메이크업 전달을 위한 일체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메이크업 이미지를 강조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 메이크업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의 시각적인 표현이며, 또한 인체 중 얼굴을 중심으로 한 메이크업 디자인의 의미와 이미지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즉, 메이크업의 디자인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첨가함으로써 실기(實技)의 이해를 도와주며, 디자이너가 시술 전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디자이너가 구상한 스타일을 고객에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공연, 이벤트, 퍼포먼스, 패션쇼 등의 현장에서 전문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로

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구자명, 2003 :61).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의 간결화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이 나타내는 의미가 너무 복잡하거나 애매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선과 색이 간결하도록 복잡성을 배제한다. 둘째, 독자성이 뚜렷해야 한다. 특별하고 독자적인 느낌을 주어 시각적으로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개성이 강한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예술적 표현성이 풍부해야 한다. 의미를 잘 상징하고 독자성이 있어 식별력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미적 감각도 갖추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되기 위해 모든 기법을 활용하고 의미를 간결화 시킨 명쾌한 표현으로 대중예술로서의 인상적인 기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주목성이 높아야 한다. 많은 시각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독특한 형태와 이미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구경희, 2003 :8-9).

메이크업의 지속적인 변화와 다양한 표현 방식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영향을 주어, 과거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순수회화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 즉, 사진과 같은 메커니즘 적인 것, 컴퓨터를 통한 기하학적 표현을 포함한 평면적인 방법과 함께 입체적·조형적인 표현방법 들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감각이 예술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술 영역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창의적이고 많은 미적 감각과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유행의 방향을 분석, 예측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작품세계를 예술적 직관력으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항상 변화하는 힘을 지닌 사회적 미용전반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표현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때 기능적 요소와 더불어 감각적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 개념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순수회화나 단순한 설명적인 그

림이 아니고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지엽적 요소만도 아닌 컨셉을 가진 목표 지향적 그림으로서 또는 시각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아트로서 그 자체만의 독자적인 장르로 형성해 가고 있다(구경희, 2003 :7).

4)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용도

현재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 디자인만을 위한 독자적인 분야로 그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기능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미용 산업체와 대중간의 단순한 메이크업 정보 전달에서부터 순수한 메이크업의 감각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표현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목적성과 기능성 및 예술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여러 가지 메이크업 디자인과 관련된 미적 표현을 나타내는 작업이므로 메이크업의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표현되어야 하고, 작품의 의도대로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구분해 보면 그 분야별 쓰임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용도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제작되어지는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메이크업 작품을 위한 것으로서 메이크업 시안에 있어 아이디어

발상 뿐만 아니라 주제 해석 능력을 비롯해 주제 표현, 컬러링 능력까지 요하게 된다. 그림1-1은 그림1-2의 메이크업을 시술하기 전에 디자이너가 드로잉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둘째, 메이크업 디자인의 조언을 구하는 스킨 고객에 대한 조언으로서의 활용을 들 수 있는데, 시술 전에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디자이너가 구상한 스타일을 고객에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제시해 주는 하나의 트렌드로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이다(그림2).

셋째, 패션쇼, 연극, 오페라 등의 무대공연, 광고, 이벤트,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인들 사이의 의사소통 도구로서 준비되어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다. 그림3은 화려하지만 악독한 캐릭터를 살린 연극의 인물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은 디자이너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시간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의도하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2) 선전·광고를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광고를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기업의 판촉을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한 인상과 흥미를 북돋워 구매동기를 유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때 어떤 판촉물에 쓰일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도는 미용관련업체의 카탈로그, 패키지 디자인, 뷰티 전문점의 이미지 광고 및 포스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4는 샤넬의 기초 화장품 지면 광고로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림5는 다양한 컬러 제품의 화려함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Mac 광고용 엽서로 개성 있는 디자인과 화려한 컬러링이 돋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또한 그림6은 엘지에서 신제품으로 한방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컨셉을 살리기 위해 단아한 여인의 모습을 일러스

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다.

(3) 트렌드 제시를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메이크업 트렌드를 제시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친근하고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는 화장품 업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며 앞으로 유행하게 될 신제품의 색조와 질감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트렌드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 준다.

그림7은 2003년 주간 코스메틱 지에 실린 가을 메이크업 패턴으로서 2003년도 가을 트렌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4) 메이크업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신문이나 잡지에서 메이크업 기사의 정보 제공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주제에 따른 작품들을 쉽게 전달하는 보도적인 기능과 메이크업 정보의 제공 및 취재 기사에서의 삽화 역할로도 이용된다. 또한 기사의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용도로서 활용된다(이상봉, 2003 :11-13). 그림8은 2001년도 Vogue지에 실린 기사로서 메이크업 도구의 용도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이것은 특히 메이크업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다.

(5)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미술품과 같이 풍부한 이미지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그림을 말한다. 그림9는 2003 Beauty Art Exhibition에 출품된 메이크업 일러스트

레이션 작품으로 에어브러시와 오브제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의 표현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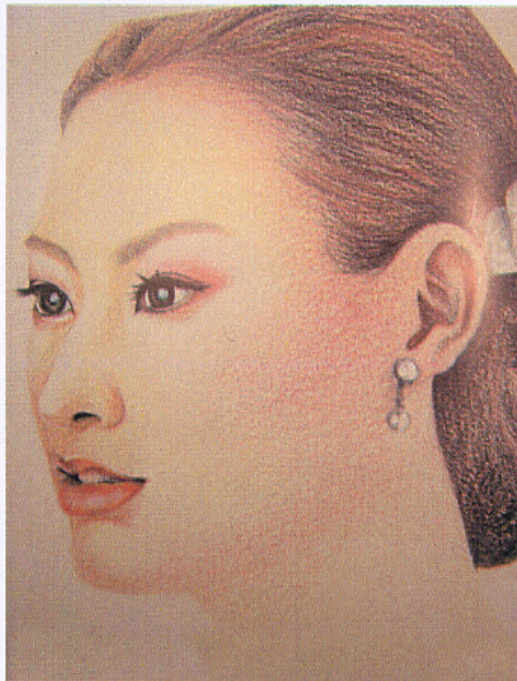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최근 전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한 예술적 모색과 창의적 개발로 인해 독자적인 예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림 1-1> 진현용 외 1인, The Body Art, Vol.1, 2002, p.30.



<그림 1-2> 진현용 외 1인, The Body Art, Vol.1, 2002, p.79.



<그림 2> 이영애 외 4인, Beauty Illustration, 2002,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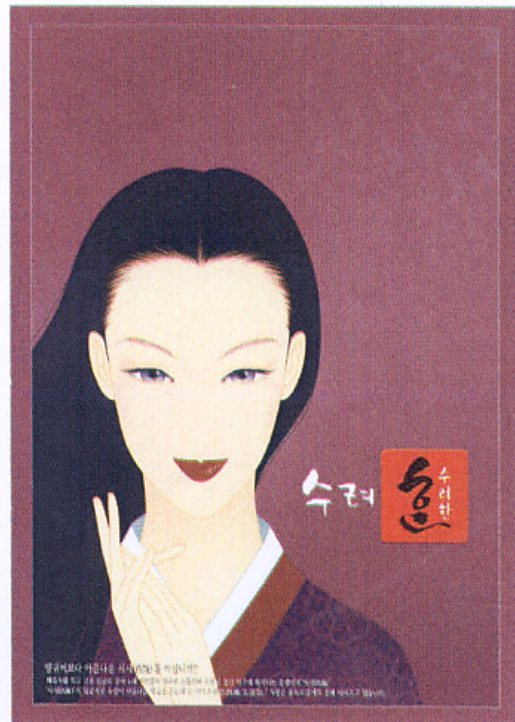
<그림 3> 이연희 외 1인, Make-up Design, 2003, p.78.



<그림 4> Vogue Korea,
2001, 10월, 부록.



<그림 5> Mac 광고용
엽서



<그림 6> 주간 코스메틱,
2003, 9월 15일자, p.8.



<그림 7> 주간 코스메틱, 2003,
9월 1일자, p.15.



<그림 8> Vogue Korea, 2001,
4월. p.79.



Jung Youn Hee

<그림 9> Make-up Art, 2003, 7월,
p.26.

2. 해체주의

해체는 기존의 세상을 이끌어온 기반이나 중심에 대한 회의 또는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든 처음의 구조를 우회하여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모든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또 다른 새로운 형태를 형성하는 작업을 말하며,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이분법적인 서구적 전통을 비판하여 구조주의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 사상 중 하나로 기존 이성 중심 사고관의 회의에 의해 시작되어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후기 구조주의는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며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함으로써 이성 중심적 태도를 지양하고, 더불어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아와 주체를 중요시한다. 또한 후기 구조주의는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사조(思潮)로, 어떤 것이 무엇을 의미하도록 강요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거나 정의 내리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특성을 지닌다(윤소정, 1996 :3).

해체주의는 이와 같이 후기 구조주의라는 사조 내의 구체적인 하나의 이론으로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가 구조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후기 구조주의로 전환한 대표적 인물이라면, 자크 데리다(J. Derrida)²⁾는 구조주의의 기본 명제

1) 구조주의(Structuralism) :구조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형식적 관계체계를 중시하여 구조 안에서 어떤 요소가 독립적 의미를 갖지 않고 그 요소를 얽어매고 있는 형식아래서 오직 의미를 지닌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자아나 주체 등 개인의 사유를 무시한 채 모든 행위를 객관화, 규격화, 조직화시키려 했다. 구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현대예술은 표현보다 형식, 형태의 창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1993, pp.81-84.

2) 자크 데리다(J. Derrida) :1930년 프랑스령 수도 알제리 근교에서 스페인계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 고교시절까지 그곳에서 성장했다. 19세 때 대학진학을 위해 프랑

들을 그 근본부터 뒤흔들며 등장한 대표 인물인 것이다(김성곤, 1988 :18).

해체주의는 1960년대 데리다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의 서구사상에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의 비평이론들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철학 및 문학 이론이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이래로 인문 과학 분야, 문학 비평과 사회 심리학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이제 는 역사학, 신학, 법학, 예술 등 전 분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윤소정, 1996 :4).

이와 같이 데리다를 통해 거론되고 체계화된 해체주의는 기존 이성 중심 사고관의 회의에 의해 시작되어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고정관념을 무너뜨린 철학 사상으로 그 해체주의는 문학, 예술, 디자인 분야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메이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데리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체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

데리다는 서양철학의 전통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통하여 서양철학의 모든 믿음들이 허구임을 밝혀내려 하였고, 그가 이러한 비판을 전개하는 접근 방식으로 써 제기한 일반적인 전략이 바로 ‘해체’의 방법이다(박연주, 1995 :24).

그는 ‘무엇이 해체주의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즉 해체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김형효, 1993 :16).

또한 데리다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

스로 옮겨와 파리고등사범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저서로는 <입장들>,<그라마톨로지>,<여백> 등이 있다.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6, pp.161-168.

단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론은 진리의 현존을 믿어왔던 서양철학 사상의 전통을 그 근원부터 해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을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다(윤소정, 1996 :5). 불확실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어 무한히 확장됨에 따라 다의(多義)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의 해체주의 이론은 의미 체계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조미영, 1999 :7). 그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를 포용하여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인 것이다(김주현, 1999 :10).

결론적으로 해체주의란 개념이나 진리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고 현 상황의 불확실성 혹은 불확정성 등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지배 중심문화로부터 잊혀지고 소외당한 타자(他者)를 인정하여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개념적 특성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것은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Dis·De 탈현상을 들 수 있다.

(1) 차연

데리다는 영어의 differ(구별하다, 다르다)와 defer(연기하다)의 뜻을 동시에 지닌 불어 동사 differer에서 differance(차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크리스토퍼 노리스 외 1인, 1996 :89). 이는 차이(difference)의 개념에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차연(差延)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 개념이 도입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것을 말하므로, 시공간의 초월과 수평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연의 논리는 동시성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김형효, 1993 :87).

(2) 상호텍스트성

이분법에 대항한 해체주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 텍스트는 서로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간다. 즉 상호텍스트성에 의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됨을 거부하며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조말희, 1997 :54).

따라서 경계가 존재하는 성, 시간, 장소, 목적 등 모든 것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성(性)의 상호텍스트성은 성을 자유롭게 융합시켜 제3의 성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 제3의 성은 남녀의 성이 서로 독립적인 성이 아니라 남성에서의 여성적 이미지, 여성에서의 남성적 이미지를 공유하는 성을 말한다. 앤드로지니(Androgyny) 즉 양성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김주현, 1999 :16-17).

(3) 불확정성

해체주의는 로고스 중심주의³⁾, 이분법이 해체됨에 따라 의미의 불확정성(Undecidability)으로 통합되었다. 데리다에 의하면 '의미'란 주관적인 허구적 구조물로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띠게 될 때 '의미'는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의미의 불확정성은 '차연'의 해체전략을 토대로 형성하고 모든 개념들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키며 상대적인 개념 하에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3) 로고스 중심주의(Logocentrisme) : 데리다는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위치시키려는 사고방식을 로고스중심주의 또는 음성중심주의(Phonocentrisme)라고 부르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의 전제가 되었다.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1989, p.375.

(4) Dis · De 탈현상

탈구성(Dis-composition)은 분해·분석된 텍스트들이 무작위로 상호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조형'이라는 개념을 기능이나 경제적, 기술적, 실용적 관점에서 구성하지 않고 변위나 간격을 두는 행위의 과정으로 본다.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기보다 처음의 구조를 음미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조를 외부로부터 붕괴시키지 않고 내부로부터 해체시키는 것이다(임광숙, 1998 :82-85).

이러한 탈구성은 1960년대 이후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으로 탈중심화 현상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탈중심(De-centralize)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이다.

2) 해체주의 메이크업

(1) 해체주의 메이크업 개념

해체주의 메이크업이란 기존의 메이크업 개념의 틀을 벗어나 파괴성, 이질성, 부적합성, 탈중심성 등을 나타내고 소외되었던 타자를 인정하며 얼굴이라는 조형요소를 해체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데리다 이론에 의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역사를 차용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표현하지만 과거-현재, 과거-현재-미래를 한 공간에 공존시킴으로써 차연의 특성을 지닌다. 차연의 특성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T.P.O에 따른 메이크업의 형태를 해체하고 아프리카나 동양권의 메이크업 문화를 차용하여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며 이질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은유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기하학적인 모티브나 콜라주 기법 등을 활용하여 회화성이 짙은 메이크업의 느

김을 나타내며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한 탈중심적이고 비대칭적인 구성으로 새로운 메이크업 효과를 나타낸다(김현미, 2001 :34).

(2)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은 의상에 따라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무대 크기와 조명 등에 따른 효과도 고려해야 하는 스테이지 메이크업이다. 그러나 의상을 돋보이게 하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뷰티 메이크업을 연출해 왔다. 1980년대 이후에야 많은 변화가 일어나 지역적 배경 역사적 상황을 기획하는 컬렉션에서 의상과 결부된 독특하고 인위적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시도되었다(김은영, 2000 :33).

1990년대 후반 캐워크를 중심으로 한 토털패션에서는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醜)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메이크업의 기능과 표현 방법의 비 관련성으로 각 요소 간 극도의 모순적 경향을 보임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 전문 잡지 등에 등장한 모델들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데리다의 이론 즉 Dis·De 탈현상,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차연을 토대로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기존 방식의 해체, 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① 기존방식의 해체

이는 기존 메이크업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형적 양식인 좌우대칭, 균형미, 통일감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색채의 사용도 무한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감각으로 연출하고 질감표현에 있어서도 피부 표현을 극도로 과장하거나 전혀 동떨어진 소재를 사용함이다. 이 같은 특성을 지

닌 메이크업을 언급하자면 ‘그로테스크’를 들 수 있겠다.

애매 모호하며 기이하고 들어 보지도 믿을 수도 없는 현상을 지칭할 때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그로테스크는 문학 뿐만 아니라 그림, 음악, 춤 그리고 미학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본래 1500년 무렵 로마유적의 발굴 과정에서 나온 특이한 당초무늬의 벽화 양식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시기에는 하나의 그림 속에 인간적 요소와 동·식물적 요소들이 정교하게 얽혀 결합된 양식이 발전했으며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의 혼합은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자아냈다(김정화, 2002 :26).

그로테스크에는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언급되는 몇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조화’이다. 그로테스크의 가장 유별난 특징으로서 갈등 충돌 이질적인 것의 혼합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의 융합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둘째, ‘희극적인 것과 끔찍한 것’이다. 그로테스크를 희극의 하부 형태로 보는 이들은 그것을 익살맞은 풍자나 천박한 우스개로 분류해 버리며 끔찍스러운 면을 강조하는 이들은 괴기와 신비 혹은 초자연적인 것의 영역에 둔다. 최근에는 이러한 두 가지를 혼합한 형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셋째, ‘과장과 극단’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질로 인해 흔히 그로테스크를 공상적 환상적인 것과 연관짓게 된다. 즉, 현실과 비현실의 의식적인 뒤얽힘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비정상성’이다. 그로테스크에 대한 반응인 재미와 혐오, 웃음과 공포, 유쾌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비정상적인 것은 우스울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섭다거나 역겨울 수도 있다. 그로테스크는 일종의 희극적인 요소들도 담긴 여러 모순들의 해결 안된 충돌이며 양면성을 지닌 비정상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영, 2000 :7-8).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기존의 정형 스타일을 파괴하여 얼굴의 윤곽을 고려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던 부분을 강조하고 이목구비의 형태의 대칭구조를 파괴

하는 등 탈형식적인 시도들이 나타났다. 또한 얼굴의 일부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색상을 사용 혹은 축소시켜 생략하거나 극도로 색상을 제한하는 등 기발하고 새로운 시각효과를 보여준다. 질감에 있어서는 극도로 매트(mat)하게 또는 광택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경우, 그 외에도 생소하고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은 그 특징에 따라 데카당스 메이크업, 데테스테 메이크업, 그래픽 메이크업, 콜라주 메이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데카당스 메이크업(Decadence Make up)

데카당스는 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허무적이며 심미주의적 문예운동에서 비롯되었다. 데카당스 미술은 문화의 미적 퇴폐 과정⁴⁾이나 예술적 활동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이상한 감수성, 자극적 향락으로 빠지는 경향과 병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패션에서는 악마스런 문양이나 과감한 색채사용, 그리고 성적인 부분이 과감하게 강조된 일종의 세기말적인 현상을 말한다(정삼호, 1996 :105).

따라서 데카당스 메이크업은 과감한 색채 사용이나 자극적인 장식 또는 성적 자극으로 인해 부자연스럽고 불건전한 양상을 보여 거부감과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메이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매 시즌 과감한 노출과 다양한 극적 연출로 화제가 되는 파티마 로페즈(Patima Lopez)의 작품 그림¹⁰은 붉은 컬러의 헤어에 애꾸눈과 불 옆, 팔과 가슴 부위의 타투(Tattoo)는 성적 욕구를 자극시켜 탐미적이고 도착적인 에로티시즘을

4) 하나의 예술운동이 정점에 다다른 후 더 이상 창조적 가능성이 결핍되었을 때 퇴폐적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퇴폐성의 요소들은 염세주의, 에너지 상실, 비정상적인 것과 병적인 것들에 대한 유혹이다.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64.

연출하였다.

그림11은 한쪽 눈에만 초점 없는 흰색 컬러 렌즈를 끼고 이마에는 핀을 꽂았다. 또한 그 사이 벌어진 피부 속에서 꽃이 피어남을 표현한 메이크업은 혐오스러운 기계 혹은 외계의 생물체를 대하는 듯한 공포와 거부감을 느끼게 한 작품이다.

그림12는 얼굴 피부 위에 행해지는 메이크업의 상식을 파괴하고 천으로 얼굴을 감싸서 얼굴의 형태가 없는 듯한 파격적인 연출이다.

또한 눈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붉은 컬러를 사용, 아이라인은 블랙으로 굵고 진하게 칠하여 강렬함을 표현한 그림13은 도발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며 창백해 보이는 피부 표현, 블랙컬러로 눈 머리와 눈 꼬리를 길게 늘려주고 굵은 인조 속눈썹을 위아래에 붙이며 검은 눈썹엔 여러 개의 비즈로 장식한 그림14는 금발의 가발과 함께 과장되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쇼걸이 연상된다.

그림15는 기본베이스를 한 후 이마 부위에 헤어라인에서 관자놀이까지 크림타입의 붉은 계열 컬러로 찍듯이 발라주고 화이트 크림을 스펀지를 이용해 상처가 있는 듯 표현하여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나. 데테스테 메이크업(Detester Make up)

데테스테(Detester)는 프랑스어로 혐악, 증오를 의미하는 단어로 깨끗함, 우아함, 단정함과 반대되는 분위기를 추구하기 위한 악취미 운동이다. 이것은 '미와 추의 경계는 극히 모호하다' 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추악하고 저속한 것에도 외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아르누보 시대의 모티브로 사용하던 곤충과 파충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써 자연요소를 이용한 자유로운 발상에 의해 만들어졌다(정삼호, 1996 :105).

데테스테 메이크업은 동물의 요소 일부를 메이크업 소재로 이용, 혐악하고 기이하며 데테스테한 이미지를 표현한 메이크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지방시(Givency)의 97-98 A/W에서는 인체의 어깨에 새의 목덜미 부분을 형상화시키고 메이크업에서 도 새의 깃털을 이용한 속눈썹과 붉은 컬러 렌즈를 이용함으로써 새의 날카로운 눈매를 표현하였으며(그림16), 그림17은 새의 눈을 연상케 하는 아이메이크업과 목과 이마 위에 새를 거꾸로 엮어 놓은 작품으로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동물 귀를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과 눈썹 위, 아래에 동물 털을 붙이고 눈 머리 부위는 고양이과 동물의 눈매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18과 헤어스타일 연출 대신 동물의 몸통을 엮어놓은 그림19는 동물적 특징을 잘 잡아내어 얼굴이나 신체를 위장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곤충이나 동물의 요소를 메이크업에 차용하여 인간과 동물의 요소를 혼용하는 것은 인간과 다른 생물간의 상호텍스트성이고, 조형예술로서 메이크업이 동물, 곤충의 요소들로 인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불확정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 그래픽 메이크업(Graphic Make up)

그래픽(Graphic)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그라피코스(Graph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쓰다’의 본 뜻이 있으며 ‘도식화한다’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정형적인’, ‘비인간적인’의 의미도 갖고 있다(김영호, 1998 :13).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생각하여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출하여 불확정성을 나타내며 중력의 작용 방향을 왜곡시킴으로써 본래의 의미로부터 이탈시켜 탈중심화된 새로움을 보여준다. 표현기법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응용하거나 색채배색과 모티브에 이르기까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정삼호, 1996 :102). 따라서 유머러스한 기호와 메시지 등을 그려 넣는 그래픽 메이크업은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긴장감을 풀고 동심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그림20은 눈에 가면을 쓴 듯한 메이크업으로 직선적 느낌과 함께 그래픽적 요소가 드러나는 메이크업이다.

그림21은 한 쪽은 얼굴과 목까지 노란색으로 페인팅 하고 대조적으로 반대편에는 곡선을 비대칭으로 인체에 맞추어 그려 넣음으로 유머러스한 작품이 되었다.

그림22는 얼굴의 중심을 무시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생각하여 기하학적 형태인 곡선을 이용함으로써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또한 그림23도 전혀 메이크업하지 않는 엉뚱한 곳 헤어라인에 푸른색으로 페인팅 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2003 S/S 보우디카(Boudicca) 컬렉션에서는 화이트 컬러로 삼각형의 그래픽적인 모양을 얼굴 중심부에 그려 넣음으로 구조적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그림 24).

이러한 그래픽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서 고려되는 얼굴의 구성요소를 해체한 탈구성적이고 탈중심적인 방법을 취하였다.

라. 콜라주 메이크업(Collage Make up)

콜라주(Collage)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콜레(Coller)로 ‘풀로 붙이다’라는 뜻으로 콜라주는 ‘아교로 붙임’, ‘풀칠하여 붙이기’를 의미한다(정삼호, 1996 :102). 콜라주 기법은 재료의 적절성에 대한 기존의 모든 관념을 깨고 재료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여 재미를 유발시킨다. 메이크업에서도 이질적 소재의 결합을 통한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는데 레이스 조각, 플라스틱, 종이, 모조품 등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거나 인조 속눈썹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메이크업에서 이질적인 요소의 도입은 극적인 요소에 의해 기이하고 부조화된 느낌 또는 재치와 유머를 전달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김정화, 2002 :29).

그림25는 마치 나비 형태를 한 듯한 헤어의 코사지와 함께 얼굴엔 비닐 소재

의 갖가지 형광색 컬러를 이용해 과장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준다.

그림26은 기존의 눈썹 형태를 무시하고 그 부분에 레이스와 형광테이프로 인위적인 눈썹을 표현하였으며, 검정과 붉은 색의 깃털이 속눈썹을 대신하고 있다. 또한 반짝이는 비즈를 립스틱 대신 붙여 입술을 표현하여 메이크업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하고자 했다. 그림27 역시 아이샤도우 대신 굵은 반짝이를 덕지덕지 발라주고 눈썹과 점을 검은 종이를 과장하여 붙이므로 유치함과 부조화를 보여준다.

그림28은 주근깨의 발그레한 볼과 색종이를 오려 눈에 붙이고 색 테이프로 머리를 장식하여 기존의 메이크업을 왜곡시켰다. 이는 '유아적 미학'이 하이 패션에 도입되어 표현됨으로서 연령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패션에서의 탈중심화 현상인 동시에 T.P.O가 혼돈된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헤어에서 이마 부위까지 신문지로 연출하고 이마에서 눈 부위까지는 화이트 컬러로 메이크업한 가와쿠보(Kawakubo)의 작품은 이질적 소재 혼합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29).

콜라주 메이크업은 재료의 한계를 탈피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해체주의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과 탈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성(性)의 해체

최근 세계 패션계는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으로 경계가 있는 모든 텍스트에 대해 조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적 파괴 본능이 복잡하고 대중화·익명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는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김경아, 1999:1).

본 논문에서의 성의 해체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닌 서로의 텍스트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상호관계에서 존재함을 말한다. 즉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 가지의 성을 모두 지닌 형태로 제3의 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는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양성적 특성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같은 성의 해체는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Androgynous Make up)으로 설명하였다.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을 이성과 조화롭게 지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융합시킨 것이다.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메이크업으로, 여성이 눈썹을 남성처럼 굵고 짙게 그리거나 눈 주위를 어두운 컬러로 칠하며 남성의 수염을 차용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한다. 또한 여성이 본래의 얼굴에 가깝도록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한 것을 말한다. 남성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고 밝은 컬러로 염색을 함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를 확대시켜 성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성 구분이 모호하도록 서로의 성이 동시에 표현된 메이크업, 남성 또는 여성과는 차별된 성 이미지를 지닌 메이크업으로 정의하였다.

그림30은 밀리터리 룩과 함께 메이크업은 눈썹을 한올 한올 터치하듯 그려줌으로 터프한 현대적 여성미를 보여준다. 그림31 또한 눈썹만을 직선적이며 진하고 굵게 터치하여 가냘픈 얼굴과 금발 웨이브 머리의 여성스러움에서 남성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림32는 짧은 컷의 헤어스타일과 함께 색감의 절제가 돋보이는 내츄럴 메이크업으로 보이시한 이미지를 나타내 주었다.

어두운 색이 남성적이라는 이미지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미쳐, 어두운 색조의 메이크업은 남성적인 강인함이 표현된다. 그림33은 전투부대의 군인을 연상케 하는 볼 터치, 아이메이크업과 촉촉한 입술은 대조적인 성 요소를 혼용한 듯 하다.

또한 그림34는 여성적인 내추럴 메이크업과 꽃 장식한 헤어스타일에 남성의 상징인 콧수염을 그림으로써 비정형적이고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③ 역사·민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는 패션의 과거와 미래가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점이 해체주의 이론의 차연으로 설명된다. 과거와 연관되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형태로 결합되는 것이며 텍스트가 시간·공간적으로 분리 혹은 합성된다. 따라서 공간적 개념인 차이의 의미와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의미를 내포하는 차연은 메이크업에서 모든 불변의 의미를 제거하고 메이크업의 본래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에서 역사·민족의 해체는 과거의 형식을 차용하되 과거의 의미와 과거의 상징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독특한 형태와 색상을 혼성모방, 변형, 삭제의 기법으로 표현한다(김현미, 2001 :61-62).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고찰하기 위해 고대에도 사용되었으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화이트 메이크업(White Make up)과 다 민족적 특성이 공존하는 레이스리스 메이크업(Raceless Make up)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화이트 메이크업(White Make up)

서구사회에서 주체는 백인이며 이는 보편적 인간성의 절대 기준이었다. 따라서 화이트컬러는 역사적으로 깨끗함, 순수함, 우월성의 의미를 지니며 상위계층을 상징해 왔다. 화이트 메이크업은 절대적인 미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또한 화이트는 애도, 패자의 의미이기도 하고 과거의 컬러이면서 미래의 컬러이며 시작과 완성의 극단적 특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이다.

이와 같이 개방성을 지니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를 이용한 메이크업을 화이트 메이크업이라 한다.

1990년대 이후 캐뉼크에서 화이트 컬러는 핫 아이템으로 등장했으며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요소가 강한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아이템에 화이트 컬러를 도입하여 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붕괴하였다. 화이트 컬러는 과거를 재해석하기도 하며 ‘현재는 곧 미래의 흔적’의 역으로써 미래를 해석하기 위해 표현되기도 한다(김현미, 2001 :63).

그림35는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와 꽃잎같이 작은 입술 표현은 전형적인 18세기 로코코 스타일이나 붉은 컬러의 아이라인과 점은 흰색과 대조를 이루어 로코코시대의 밝고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퇴폐적인 분위기를 전달한다. 또한 그림36은 밝은 피부 표현, 얇고 검은 눈썹과 점의 응용은 50년대 여인들을 추억하게 만든다. 이는 과거의 아름다움을 현시대에 맞추어 표현하고자함을 나타내어 흥미롭다.

그림37은 밀가루로 얼굴 전체를 뒤덮은 듯 하얀 베이스와 핑크 색의 축소된 입술이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 이미지를 느끼게 해주고, 하얀 마스크를 쓴 듯한

그림38은 굳이 블랙라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이라인과 아이브로우 라인을 부드럽게 상승시켜 동양 여성의 눈매를 표현하였으며 이는 중국 경극 메이크업을 패러디한 것으로 해학적 이미지를 전달한다.

지방시는 기하학적인 다이렉트 퍼머 헤어스타일의 가발을 씌우고 화이트 베이스에 눈과 볼의 굴곡처리로 기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미래적인 실버톤의 컬러를 첨가시켜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였다(그림39).

이와 같이 화이트 메이크업은 역사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에 이문화적인 요소를 병치시켜 시간·공간의 해체와 절충을 동시에 보여준다.

나. 레이스리스 메이크업(Raceless Make up)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문화적 경계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시대·문화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종합하려는 양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역사적으로 성립되어온 민족성을 해체하여 다국적으로 나타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 레이스리스(Raceless)이다(Vogue Korea, 1998 :74).

레이스리스는 획일적인 문화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문화를 공존시킴으로써 지배적 가치가 붕괴된 혼돈의 세기말을 극복하고 인간 본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 메이크업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 또는 소수민족 문화, 흑인 문화의 전통적인 특성이 반영된 메이크업을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이라 정의하였다.

그림40은 고대 이집트 룩을 재현한 것으로 강렬하고도 화려한 눈화장이 돋보이는 메이크업이다. 녹색 기운이 짙은 강한 색감과 골드 빛을 눈화장에 더하여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메이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림41은 중국의 경극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아주 얇게 치켜 올라간 검은 눈썹, 빨간 입술과 아이샤도우, 블러셔가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42는 아메리카 인디언 스타일로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눈만 강조하고 블러셔만 드러낸 것이 특징이다.

토속적인 진흙을 이용한 지방시의 작품 그림43은 진흙을 머리에 발라 정교하게 꼬아 올린 헤어스타일에서 조형적미를 강조하였으며 이마와 턱 등에 코울을 이용한 터치들이 '가벼움'을 추구한 듯 하다.

그림44에서는 아프리카 정서가 엿보이는 작품으로 주술적 의미가 담긴 듯한 얼굴의 페인팅이 시선을 끈다.

장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는 매 시즌 다른 문화권에서 받은 영감으로 컬렉션을 전개했는데 그림45는 힌두교의 크리슈나 신의 파워를 등장시켰으며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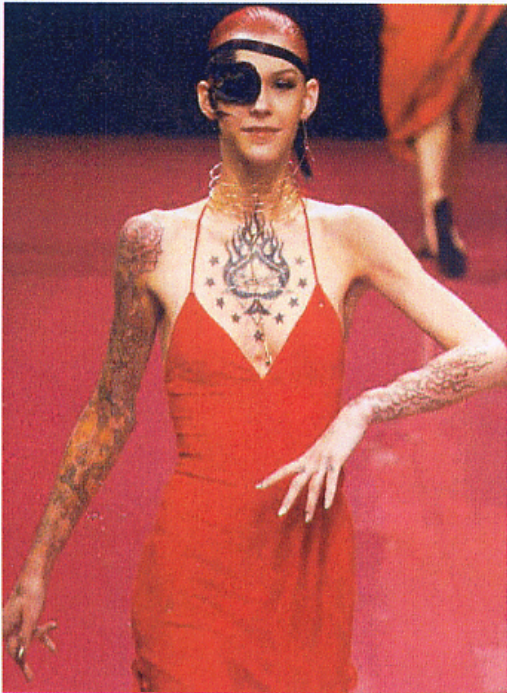
와 자유의 상징인 불교의 오렌지 컬러를 응용하여 메이크업하였다.

따라서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은 차연의 의미로 다양한 문화가 자신의 공간을 이탈하여 한 공간에서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표 1>은 현대 패션의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나타난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요약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

분류	메이크업 분류		특성 및 표현 기법	해체주의 이론
기존 방식의 해체	그로테스크	데카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화와 과장된 표현 · 다양하고 이색적 컬러 도입 · 자극적 장식에 의한 혐오감 · 성적 노골화로 인한 에로틱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탈구성
		데테스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이나 동물 요소 이용 · 저속한 이미지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구성
		그래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하학적인 형태 이용 · 비인간성 표현 · 새로운 공간개념 창출 	불확정성 탈구성 탈중심
		콜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인 소재 사용 · 인조 속눈썹의 변형 · 부조화로 인한 기이함과 유머러스함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구성
성의 해체	앤드로지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된 성의 요소 도입 · 여성의 내추럴 메이크업 · 남성의 메이크업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역사·민족의 해체	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가부키 메이크업과 로코코 시대의 메이크업 변형 · 실버 톤 혼합에 의한 분위기 표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중심
	레이스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민족의 문화 도입 · 흑인 문화의 소재 이용 · 다양한 문화의 혼합 	차연 상호텍스트성 탈중심



<그림10> Fatima Lopez,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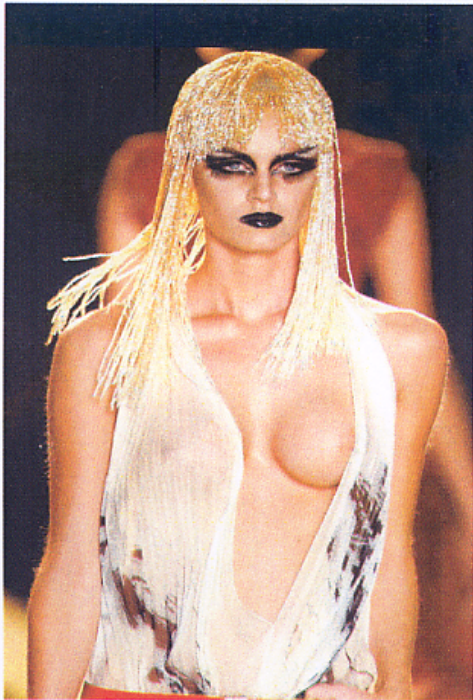
<그림11> Alexander McQueen, '97 S/S, Century of Fashion, p.351.



<그림12> Vivienne Westwood, '02 S/S, Fem, Vol.2, p.101.



<그림13> Christian Lacroix, '00-01 A/W, Collections II, p.234.



<그림14> Christian Dior,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p.183.



<그림15> Marella Ferrera,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p.145.



<그림16> Givenchy, '97-98 A/W, Modain, N.105,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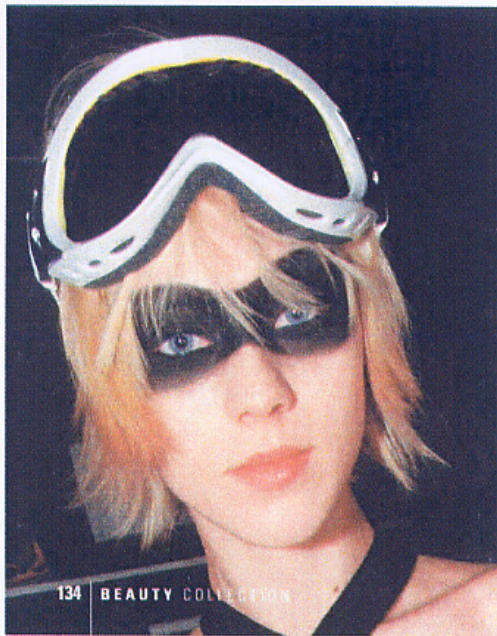
<그림17> Givenchy, '97-98 A/W, Modain, N.105, p.109.



<그림18> Thierry Mugler, '00-01 A/W, Collections II, p.385.



<그림19> Thierry Mugler, '00-01 A/W, Collections II, p.387.



<그림20> Jean-Charles De Castelbajac,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134.



<그림21> Christian Dior, '00-01 S/S, Vogue Korea, 2000, 3월, p.40.



<그림22> Hussein Chalayan,
'02 S/S, Fem, Vol.2, p.236.



<그림23> Hamish Morrow,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159.



<그림24> Boudicca,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p.80.



<그림25>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267.



<그림26> John Galliano, '03 S/S,
Beauty Collection, Vol.1, p.136.



<그림27>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273.



<그림28> John Galliano, '00-01 A/W,
Collections II, p.489.



<그림29> Kawakubo, '02 S/S, Fem,
Vol.2, p.74.



<그림30> Ann Demeulemeester, '02 S/S, Fem, Vol.2, p.43.



<그림31> Shimura, '99-00 A/W, Gap Press Collections , Vol.21, p.61.



<그림32> Ronit Zilkha,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273.



<그림33> Franklin Roosevelt, L'Officiel Paris, N.867, p.69.



<그림34> John Galliano, '00-01 A/W, Collections II, p.243.



<그림35> Christian Dior, Vogue Italia, No.583, p.226.



<그림36> Issey Miyake,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99.



<그림37> John Galliano, '02 S/S, Fem, Vol.2. p.58.



<그림38> John Galliano, '03-04
A/W, Beauty Collection, Vol.2, p.155.



<그림39> Givenchy, '99-00 A/W,
Collections, Vol.20, p.14.



<그림40> John Galliano,
'97-98 A/W, Modain, N.105,
p.193.



<그림41> Christian Dior, '97 S/S,
Modain, N.103, p.37.



<그림42> Christian Dior, '97-98
S/S, Studio Collections, N.56, p.49.



<그림43> Givenchy, '97 S/S,
Modain, N.103, p.158.



<그림44> Yohji Yamamoto,
'02 S/S, Fem, Vol.2, p.176.



<그림45> Jean Paul Gautier, '02
S/S, Fem, Vol.2, p.145.

Ⅲ. 작품 제작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다양화로 메이크업 디자인의 보조 수단에서 탈피하여 자체로서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의 테마에 따른 일러스트레이션의 시도가 디자인 발상의 측면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주제를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시킴으로 표현 영역의 확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작품은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인 기존방식의 해체로서의 데카당스 메이크업, 데테스테 메이크업, 그래픽 메이크업, 콜라주 메이크업, 성의 해체로서의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역사·민족의 해체로서의 화이트 메이크업,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이미지에 맞는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제작하였다.

또한 작품의 표현 방법으로는 다양한 느낌과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드로잉 칼라인 수채화 물감, 포스터 칼라, 아크릴 물감, 색연필, 파스텔 등에서 부터 잡지, 신문, 한지, 부직포, 스크린톤, 구슬, 비즈, 깃털 등 여러 가지 오브제의 활용으로 재료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화면 구성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2. 작품 및 해설

【작품 1】

제 목 : 구원

분 류 : 기존 방식의 해체 - 데카당스 메이크업

재 료 : 스크린톤, 부직포, 비즈, 금가루,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해설 : 창백하리 만큼 밝은 피부색.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검은 색 아이 샤도우와 아이라인은 눈물을 흘려 검은 물이 흘러내린 듯하게 불규칙한 선 처리로 표현하였다. 이는 메이크업 기법을 왜곡시킴과 동시에 암울한 분위기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눈두덩을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비즈를 붙임으로서 다소 정돈되지 않은 느낌의 아이메이크업을 표현하려 하였다.

또한 새빨간 입술에 중심부위는 검정으로 포인트를 준 것과 팔뚝 부위의 타투(Tatto), 빨간 컬러의 헤어 연출을 통해 퇴폐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컬러와 선의 불규칙과 불안정, 극단적인 대조들이 결핍된 심리상태를 극도로 드러낸다.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진 눈물이 아니라 공허와 절망의 눈물이며, 암울하고 퇴폐적인 끝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여인의 눈물을 창조주가 바라 보아주길 바라며 제목을 '구원'으로 하였다.



<그림46> 작품 1 의 사진

【작품 2】

제 목 : 이방인

분 류 : 기존 방식의 해체 - 데카당스 메이크업

재 료 : 스크린톤, 부직포, 비즈, 반짝이 줄, 색종이, 칼라펜,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 해설 : 모자·헤어·의상의 블랙과 피부의 화이트, 부분 마스크의 레드와 아래 눈썹의 그린으로 색상 대비를 이루어 시각적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메이크업 기존 방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린 계열의 이색적 립 컬러로 인한 생소함, 무표정한 얼굴에 표현한 초록빛 눈썹의 억지스러움과 과장됨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 눈썹, 눈동자는 오브제를 이용하였다.

극단적인 컬러의 대비 속에 표정까지 말이 없다. 눈은 어딘가를 또렷이 응시하고 있다.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만의 독립적 컬러를 고집스레 지키고 있는 반면에, 대중 속에 섞여 어울려지지 못하는 이방인의 고립을 느껴보고자 하였다.



<그림47> 작품 2 의 사진

【작품 3】

제 목 : 회귀
분 류 : 기존 방식의 해체 - 데데스테 메이크업
재 료 : 깃털, 금가루, 색 모래, 포스터칼라, 수채화 물감

작품 해설 :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자하는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 머리는 완전히 새의 깃털을 이용하여 장식하였고 아이라인은 새의 날카로운 눈매와 털의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금색의 많은 선 터치로 연출하였다. 위와 같은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자 미간에 청록 빛이 감도는 작은 깃털을 이용하였으며 입술도 새의 작은 부리를 연상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축소시킨 립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본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의 요소를 혼용하는 타 생물간의 상호텍스트성과 이로 인해 메이크업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불확정성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48> 작품 3 의 사진

【작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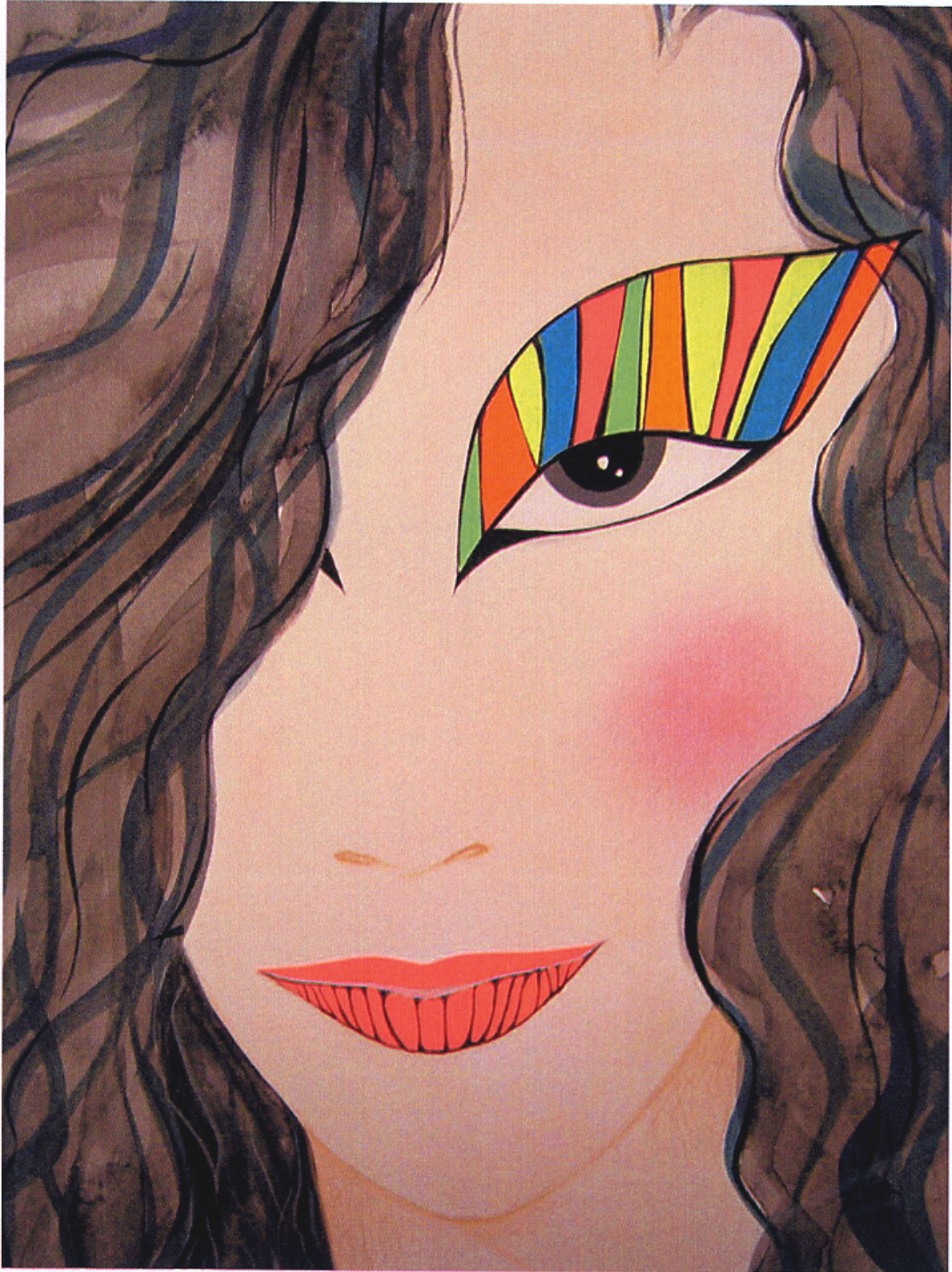
제 목 : 해방

분 류 : 기존 방식의 해체 - 그래픽 메이크업

재 료 : 색종이, 잡지, 수채화 물감, 포스터칼라, 색연필, 화장품(아이샤도우
컬러, 트윈케이크)

작품 해설 : 한쪽 눈 메이크업으로 포인트의 폭을 좁혀 메이크업의 정형적 표현 기법을 무시하였다. 형광 컬러의 다양한 색종이로 불규칙적인 면 분할을 주고 분할시키는 라인은 상반되는 저명도 색의 검정을 이용하여 각자의 컬러를 더욱 강조되어 보이도록 처리함으로써 그래픽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하였다.

컬러의 구속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듯, 한 가지 컬러의 흐름에 매이지 않고 다양한 컬러를 한 눈에 모아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림49> 작품 4 의 사진

【작품 5】

제 목 : 이국에 대한 허상

분 류 : 기존 방식의 해체 - 콜라주 메이크업

재 료 : 티슈, 한지, 잡지, 인조속눈썹, 비즈, 네일에나멜, 포스터칼라, 아크릴물감

작품 해설 : 잡지, 한지에서 비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의 혼합을 통해 소재의 한계성을 탈피한 콜라주 메이크업 작품으로, 인조속눈썹으로 굵은 쌍꺼풀라인을 강조해 주었으며 화려하고 다양한 컬러의 비즈 장식으로 아이언더라인을 대신하였다. 발그스레한 볼 표현은 다홍색 한지를 찢어 붙이고 위·아래 입술은 빨간 비즈로, 머리엔 커다란 꽃 장식으로 연출하여 기존의 메이크업 방식을 왜곡시켰다. 과도한 이질적 재료 사용으로 인한 유치함과 함께 웃음을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한껏 치장한 여인. 인조로 만들어진 각종 재료들로 치장함으로서 자연스러움을 완전히 덮어버린 얼굴은 그 본연의 자연미를 알 수 없게 연출하였다. 이국의 미를 숭배, 동경하는 허상이다.



<그림50> 작품 5 의 사진

【작품 6】

제 목 : 외출

분 류 : 기존 방식의 해체 - 콜라주 메이크업

재 료 : 잡지, 비즈, 반짝이 풀, 칼라 펜, 포스터칼라

작품 해설 : 사진의 형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짜 맞추어 전환시킨 콜라주 기법의 헤어스타일과 얼굴을 통해 기발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눈을 중심으로 다양한 컬러의 비즈를 붙임으로 한번쯤은 화려함과 사치를 동경하는 여자의 심리를 묘사해 보았고 이마 중앙에 꽃 모양의 콜라주 연출은 유아적이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나타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는 배경의 무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래간만의 외출에 여인은 과감히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시도해보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고 세련되지 못하다. 그러나 오늘, 여인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화려하며 그 발은 로마와 밀라노, 나폴리의 거리를 걷고 있다.



<그림51> 작품 6 의 사진

【작품 7】

제 목 : SALARY WO+MAN

분 류 : 성의 해체 -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재 료 : 부직포, 잡지, 색종이, 화장품(트윈케이크, 아이샤도우 컬러), 수채화 물감, 포스터칼라, 아크릴 물감, 색연필

작품 해설 : 건조한 도시와 그 속에서 메마른 정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해 보았다. 또한 이 사회는 여자와 남자가 평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해 가야 함을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베이스컬러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중간 톤으로 처리하였고 남성적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검고 굵으며 거친 눈썹 표현과 광대뼈 골격을 강조 즉 광대뼈 밑을 샤도우로 처리하여 강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밝은 오렌지 컬러의 아이메이크업으로 표현해주었고 입술도 작고 붉은 컬러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양성이 공존하는 형태의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을 시도해 보았다.



<그림52> 작품 7 의 사진

【작품 8】

제 목 : 회상 1

분 류 : 역사 · 민족의 해체 - 화이트 메이크업

재 료 : 잡지, 비즈, 스펀지 볼, 화장품(아이샤도우 켈러), 금가루,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 해설 : 1970년대 유행하던 복고풍 헤어스타일로 모근으로부터의 반은 스트레이트, 모발 끝 부분은 웨이브 디자인을 연출하였으며 웨이브의 표현은 단순하면서도 추상적 이미지로서 다양한 크기의 원형으로 대신 하였다.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 스펀지 볼을 이용하여 군데 군데 붙여 주었다.

가부끼 메이크업을 연상시키는 하얀 피부 표현과 동양적 눈매에 화려함을 더해주기 위해 아이샤도우 켈러는 금빛으로 연출하였으며 연지 · 끈지 그리고 인도 여인들이 눈썹 사이에 찍는 상징적인 화장을 응용하여 볼과 이마를 장식하였다.

그윽한 눈매 표현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볼 수 있다.



<그림53> 작품 8 의 사진

【작품 9】

제 목 : 회상 2

분 류 : 역사·민족의 해체 - 화이트 메이크업

재 료 : 잡지, 스크린톤, 색종이, 비즈, 금가루, 포스터칼라, 색연필

작품 해설 : 과거 한국의 남자들이 틀던 상투와 선녀의 머리 스타일을 혼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변형시켰다. 또한 검정 계열의 명암차이로 머리결 표현을 단순화 시켰으며 화이트 베이스 표현과 붉은색 타원형의 아이라인은 일본 가부키 메이크업에서 차용하였다. 볼 위 부분에는 연지, 곤지의 이미지를 빌어 약간의 위치 변화와 크기를 축소시킴으로 과거의 전통 메이크업을 현대적인 느낌이 들도록 연출하였다.



<그림54> 작품9 의 사진

【작품 10】

제 목 : 그 곳으로.... 1

분 류 : 역사·민족의 해체 -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재 료 : 생사, 인조사, 스웨이드, 금가루, 화장품(아이샤도우 컬러), 아크릴 물감, 포스터칼라, 수채화 물감, 색연필

작품 해설 : 소수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성이 반영되는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의 특성에 맞추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취했던 머리 장식의 이미지를 살리고 얼굴은 마오리족이 행한 타투 문양의 일부를 인용해 표현하였다. 머리결은 웨이브 지고 다소 부스스한 모습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분장 할 때 수염으로 사용하는 인조사와 생사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타민족의 문화성을 교차시킴으로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55> 작품10 의 사진

【작품 11】

제 목 : 그 곳으로.... 2

분 류 : 역사·민족의 해체 - 레이스리스 메이크업

재 료 : 한지, 스웨이드, 금가루, 화장품(아이샤도우 컬러), 아크릴 물감, 포스터칼라, 수채화 물감

작품 해설: 아프리카 원주민의 끈 머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한지를 말아 표현하였다. 힌두교도들의 상징으로 이마 중앙에 색료를 바르는 문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불교의 상징 칼라인 오렌지색으로 이마에 원형 모양의 페인팅을 해주었고 붉은 칼라의 눈 주위 메이크업은 중국의 경극에서 행하는 분장 표현기법으로 연출하였다. 액세서리를 즐겨하는 아프리카 부족들의 느낌을 주기 위해 귀걸이·목걸이를 과장시켜 그렸다. 또한 갈색 피부와 두꺼운 입술 묘사로 흑인의 전형적인 얼굴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56> 작품11 의 사진

IV. 결 론

1990년대 말 이후 캐주얼을 중심으로 한 토털패션에서는 형태 파괴, 불완전성, 왜곡, 기형 등 실험적이고 충격적인 '추'의 미가 본격적으로 표현되었고 메이크업의 기능과 표현 방법의 비 관련성으로 각 요소간 극도의 모순적 경향을 보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해체주의 현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의 흐름에 있어 주목받고 있는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제작에 있어서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징들을 테마로 삼아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영역의 확대와 표현 방법의 다양함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그 특성을 기존 방식의 해체, 성의 해체, 역사·민족의 해체로 구분 지어 설명하였다.

기존 방식의 해체는 좌우대칭, 균형미, 통일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또한 색채 사용과 질감 표현에 있어서도 기존 메이크업의 모든 구조적 형태와 표현 방식을 해체함을 말한다. 과감한 색채 사용이나 장식으로 성을 자극시켜 거부감을 일으키는 데카당스 메이크업과 곤충이나 동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기이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테스테 메이크업,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응용하여 유머러스한 기호와 메시지를 표현하는 그래픽 메이크업,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의외성을 유발시키는 콜라주 메이크업이 있다.

성의 해체는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로 인해 두 가지 성을 모두 지닌 형태인 '제 3의 성' 개념을 의미한다. 직선 처리나 저명도 칼라의 남성적 이미지와 부드러운 곡선 처리, 고명도 칼라를 이용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혼합한

메이크업을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이라 하였다.

역사·민족의 해체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고 다 민족적 특성들이 공존함을 말한다. 과거와 미래의 이미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화이트컬러를 이용한 화이트 메이크업과 고대 이집트의 질은 아이메이크업, 마오리족의 다양한 문양의 타투 등과 같이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동시에 표현한 레이스리스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에서는 수채화물감, 포스터칼라, 색연필 등의 기본적인 드로잉 재료 뿐만 아니라 잡지, 부직포, 스크린톤, 비즈, 구슬, 스웨이드, 모래 등의 오브제를 활용하여 입체적 표현과 매체의 혼합 등을 보여줌으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해체주의 메이크업의 특성을 모티브로 삼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은 묘사 위주의 표현에 치중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영감과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작품 제작 표현기법에서 충분히 해체주의를 활용하지 못한 것에 그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험적인 새로운 소재·주제 개발과 표현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이 외적 표현의 부수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형식이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개방적, 창조적인 사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실험성이 강한 다양한 예술사조나 패션양식을 모티브로 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의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단행본>

- 권상구. 『시각디자인의 기초』. 서울 : 미진사. 1999.
- 김광숙 · 이현주 · 전연숙 · 조진아. 『The Make-up』. 서울 : 도서출판 예림. 2002.
-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6.
- 김성곤.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 민음사. 1988.
- 김영호. 『시각디자인의 구성 원리』. 서울 : 태학사. 1998.
-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 : 민음사. 1993.
- 박선의 · 최호천.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서울 : 미진사. 2001.
- 앤드류 장.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서울 : 도서출판 디자인하우스. 1993.
-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교보문고. 1989.
- 이연희 · 이화진. 『Make-up Design』. 서울 : 청구문화사. 2003.
- 이영애 · 김영규 · 노선옥 · 이귀영 · 김선영. 『Beauty Illustration』. 서울 : 청구문화사. 2002.
- 정삼호. 『현대 패션 모드』. 서울 : 교문사. 1996.
- 진현용 · 최성민. 『The Body Art』. Vol 1. 서울 : 도도컴. 2002.
- 크리스토퍼 노리스 · 앤드류 벤자민. 청람 번역팀 역.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도서출판 청람. 1996.

<논문>

- 구경희. 「헤어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 단순화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구자명. 「헤어와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기법 연구」. 패션뷰티학회지 1권 1호. 2003. pp.57~70.
- 김경아. 「1999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미화. 「시각 표현기법에 따른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정화.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후반 패션쇼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주현.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현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노희영. 「현대 아트 메이크업의 회화적 경향과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연주. 「매니쉬 룩의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윤소정.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 : 탈 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상봉.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과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
학회지 제4권 제1호. 2003. pp.7~28.

임광숙.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조말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조미영.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9.

<정기간행물>

Beauty Collection. Vol.1.

Beauty Collection. Vol.2.

Fem. Vol.2.

Make-up Art. 2003. 7월.

Vogue Korea. 1998. 12월.

Vogue Korea. 2001. 3월. 4월. 10월.

주간신문 코스메틱. 2003. 9월 1일자. 15면.

주간신문 코스메틱. 2003. 9월 15일자. 1면.

외국문헌

<단행본>

Francois Baudot. 『Century of Fashion』. London : Thames & Hudson. 1999.

<정기간행물>

Collections II. Japan. 2000.

Collections. Vol.20.

Gap Press Collections. Japan. Vol.21.

L'Officiel. Paris. No.867.

Modain. No.103.

Modain. No.105.

Studio Collections. Australia. No.56.

Vogue Italia. No.583.

ABSTRACT

The Make-up Illustrations Based on Deconstruction

Lee, Jae Yeol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uggest new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ake-up design by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make-up and to search for new directions and methods in theme expressions and design conceptions by making illustrations with deconstruction themes.

This study examines "separation from phenomena", "undecidability", "intertextuality" and "differance" as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Derrida's deconstruction, and analyzes the various deconstruction make-up styles through the famous fashion magazines such as Beauty Collection, Collections, Fem, Modain, and Vogue since 1997. The make-up illustration works in this study were made depending on these styl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deconstruction make-up can be explained as deconstruction of existing methods, deconstruction of the sexes and deconstruction of history or ethnicity. The deconstruction of existing methods

does not put any limitation to bisymmetry, beauty in balance or sense of unity, and it further deconstructs all structural forms and ways of expression of existing make-up styles in color and texture. It can be subdivided into "decadence make-up", which provokes sexual excitements by using bold colors and decorations, "detester make-up", which expresses eccentric images gained from insects or animals, "graphic make-up", which expresses humorous symbols and messages using simple and geometrical forms, and "collage make-up", which provokes unexpectations using various materials.

Deconstruction of the sexes means the concept of "The Third Sex" incorporating both male and female sexes, that stems from the feminization of men, and the virilism of women. Androgynous make-up is a mixed image make-up style, mingling male images using straight lines and low luminosity with feminine images using curved lines and high luminosity.

Deconstruction of history or ethnicity means such a state avoided from time and space notions, where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coexist and various ethnical characteristics coexist with each other. It is subdivided into "white makeup" using white coloring including images of the past and the future concurrently, "Ancient Egyptian dark eye makeup" and "raceless make-up" which expresses various ethnical characteristics altogether, like Maori tattoos with various other patterns.

Second, the deconstruction make-up illustrations present infinite possibilities in expression styles through three dimensional expressions and media mixture using not only drawing materials including watercolor, poster-color, and color pencils but also objets including magazines, coarse

fabrics, screentone, beads, suede, sand and so on.

Third, the study shows that since deconstruction make-up illustrations are not limited to depiction-centered expressions, they serve creating unique images and future inspirations.